



제목	Istanbul: City of Majesty at the Crossroads of the World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Penguin Books
발행일	2017. 11. 7.
저자	Thomas F. Madden
출판도시	London
페이지수	400
ISBN 또는 ISSN	978-0143129691

**내용 요약**

『이스탄불: 세계의 교차로에 있는 위엄의 도시』는 유럽의 끝이자 아시아의 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탄불 역사서이자 문명의 중심지에 관한 전기이다. 이 도시는 그리스인들이 설립하여 비잔티움으로,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콘스탄티노폴로, 오스만 제국의 점령으로 이스탄불로 불린다. 나폴레옹이 “만일 지구가 하나의 국가로 된다면 그 수도는 이스탄불이 될 것이다”고 할 정도로 이 도시는 과거와 현대 문명의 보고이다. 이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서 축복받은 위치에 있다 보니 알렉산드로스부터 로마, 오스만까지 탐냈다. 저자 매든은 이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과 교회와 수도원 같은 화려한 건축물에 관해 기원전 667~2016년까지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.

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. 1부 ‘비잔티온(기원전 667~기원후 330)’은 ‘장님의 도시 건너편’, ‘아테네인들을 위한 빵’, ‘로마인들이 가져온 선물’, 파괴와 생존에 대한 설명이다. 2부 ‘비잔틴 콘스탄티노플(330~1453)’은 새로운 로마 건설, 축복받은 수도, 서로마 제국 몰락 때의 동부, 유스티니아누스의 도시, 중세 동안의 보고, 비잔틴의 음모, 재정, 제국의 몰락을 담고 있다. 3부 ‘오스만 콘스탄티노플(1453~1923)’은 술탄이만 대제의 도시, 여성 술탄의 지위, 서구로의 회귀, 유럽의 병자, 제국의 종말을 설명하였다. 4부 ‘이스탄불(1923~2016)’은 현대가 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. 저자는 현대사는 균형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16년의 군부 쿠데타는 언급하지 않고, 대신 532년의 니카의 반란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.